



*Toward
 Global
 Top Tier*

The Singal Bypass project 도심 한가운데 관통하는 5.1km 도로 ... 현대건설이 해냈다

The Singal Bypass project, built by Hyundai E&C in a downtown area, is scheduled to open on November 29. The project linking between the Suwon-Singal Interchange on the Gyeongbu Expressway and the downtown of Yongin-si is to construct the 5.1-kilometer road with 13 bridges, which will serve as a right solution to traffic congestion in the downtown of the city. Let's take a close look at the story abou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ingal Bypass crossing the Seoul-Busan Expressway.

▶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이 시공한 도심지 대공사, 신갈우회도로가 11월 29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부터 용인 시내를 잇는 신갈우회도로는 교량 13개소(2.3km)를 포함하는 총 연장 5.1km로, 용인시 가지의 교통난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신갈고가교 공사로 주목을 받은 신갈우회도로 현장의 성공적 준공 스토리를 만나보자.

▶ 관련기사 6, 7면



The 2018 Hyundai E&C Technology Conference held

Hyundai E&C held the 2018 Hyundai E&C Technology Conference as an effort to look into a trend towards cutting-edge, future technologies.

The Hyundai E&C Technology Conference, which marks its 11th anniversary this year, is the country's one and only global construction technology conference designed to provide lectures by leading engineers and experts of renowned construction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This year's conference was divided into a main session and a technical session under the theme of the "Sustainable Value Creation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 total of 19 Speeches were delivered during the conference.

The 2018 conference was well received in that Hyundai E&C offered a venue for win-win cooperation with its Cooperative Partners by jointly exhibiting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Drone, 3D Scanning and Cloud Platform, and suggesting ways to apply state-of-the-art technologies to construction sites in reality.



건설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조 '2018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개최

현대건설이 최신 선진 기술 동향과 미래 기술을 전망하는 '2018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는 국내외 선진 건설사 엔지니어 및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건설기술 공개 학술발표회다. 컨퍼런스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조'라는 주제 아래 메인 세션과 기술 세션으로 나누어 총 19건의 발표를 진행했다.

메인 세션은 ▶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첸밍왕(Chien Ming Wang)교수의 '해양 부유식 구조물 기술 및 시장 전망' ▶ 싱가포르 컨설팅사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벵트 폰 슈베린(Bengt von Schwerin) 동아시아 총괄 매니저의 '환경 및 에너지를 통한 프로젝트 가치 창출' ▶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 압둘모신 하산 알 라시드 (Abdulmohsin Hassan Al-Rashid) 건축국장의 '카타르 병원 건축 트렌드 및 계획'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술 세션에서는 현대건설 및 선진 건설사의 전문가 발표자로서 인프라·스마트 건설·신성장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기술컨퍼런스는 협력사와 함께 3D프린팅·드론·3차원측량·클라우드 플랫폼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공동으로 전시하고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hanging paradigm of safety training

Safety Culture Center opens on November 7

Our company held a ceremony to open the Safety Culture Center on November 7 where visitors are able to experience safety-related incidents which may occur at construction sites and learn helpful work safety rules.

The Safety Culture Center, located in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features lecture rooms as well as 19 hands-on experience facilities related to 11 construction fields encompassing fall safety, crane rigging, collision and narrowness of machinery, shear point, use of circular saw, and collapse of retaining walls. After one month of the test operation for supervisors at our construction sites, our company upgraded the facil-



(왼쪽부터) 과모원 안전지원실장, 채병석 기술교육원장, 이충호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학원 한국야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장,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 임동진 노조위원장.

ities. By opening the new center, our company plans to increase the safety awareness of ou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nd spread the safety culture at a corporate wide.

“The new center was aimed to help trainees experience possible

dangers lurking at construction sites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safety by using the storytelling to allow participants to follow a story during the training, and combining the hands-on devices and virtual reality to maximize the sense of realism,”

said an official.

Non-Hyundai E&C employees who want to take part in the training can apply for participation via webpage of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from the first half of next year.

안전문화체험관 개관... 안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1월 7일 오픈, 11개 공종 19개 체험시설 갖춰

우리 회사가 11월 7일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 과모원 안전지원실장을 비롯해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체험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오픈한 ‘안전문화체험관’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유용한 작업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실증체험 공간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내에 위치한 ‘안전문화체험관’은 총 200평 규모로 ▶낙하물안전체험 ▶크레인줄걸이 방법 체험 ▶장비충돌협착체험 ▶끼임점체험 ▶동근통체험 ▶흙막이붕괴체험(VR) 등 19개 체험시설(11개 공종)과 강의실 등을 갖췄다. 모든 체험시설은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보완점을 개선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체험관 개관으로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체험 동선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연결하고 체험장치와 가상현실(VR)을 결합해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등 체험자가 건설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요소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설계했다”며 “향후 체험관은 우리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은 물론 외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 교육 희망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전문 강사 2명의 안내에 따라 3시간 가량 소요된다.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 MS 데이터 센터 수주

우리 회사가 10월 24일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발주한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의 공사를 따냈다.

총 1500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대에 연면적 10만 9151㎡, 지하 4층~지상 9층(730병상)의 의료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 국내외 50여 개의 병원을 시공한 노하우와 기술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력을 바탕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

한편 2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주한 ‘MS 데이터 센터’를 수주했다. 부산 강서구

구랑동에 들어서는 이 건물은 지상 3층, 1개 동 규모로, 공사 금액은 1177억원(당사분 465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간이다.

베트남 LPG Cavern 및 LPG 입출하 시설 수주

우리 회사가 10월 25일 효성비나케미칼(Hyosung Vina Chemicals)이 발주한 ‘베트남 LPG Cavern 및 LPG 입출하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50km에 위치한 카이몹(Cai Mep) 산업단지 내에 LPG(프로판/부탄) 24만t을 저장하는 지하 유류 저장동굴(Cavern)과 입출하 시설을 짓는 공사다. 공사비는 1억1800만 달러(당사분 9300만 달러)로 공사 기간은 26개월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66년 베트남에 첫 진출해 총 17건, 21억5800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해외건설협회 기준).

안전보건 · 품질 · 환경 · 에너지 인증심사 완료

우리 회사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로이드인증원(LRQA Korea)으로부터 OHSAS 18001(안전보건),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ISO 50001(에너지)의 재인증 및 사후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본사 11개 부서를 비롯해 대미평택속소시설 등 11개 국내 현장, 싱가포르 창이 동부 매립공사 등 4개 해외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인증심사를 통



해 회사의 안전보건·품질·환경·에너지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93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받은 데 이어 ISO 14001(1996년)/ISO 50001(2012년), OHSAS 18001(2003년)을 연속으로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1순위 경쟁률 173대 1

힐스테이트 펜타힐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173.3: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37.5:1(전용면적 84㎡)’로, 34가구 모집에 8076명이 몰렸다. 청약당첨자는 11월 8일에 발표하며, 계약은 11월 20~22일 사흘간 진행된다.

우리 회사가 경북 경산시 중산동 628-49번지 일대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펜타힐즈는 지하 2층~지상 35층 5개 동, 총 657세대 규모다. 힐스테이트 펜타힐즈는 행정구역상 경산시이지만 대구 수성구 시지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외국인 유학생 초청 견학 프로그램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10월 30일부터 5일간 현대기아차 사업장 등에서 18개 대학, 79개국의 정부 초청 우수 외국인 유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Global Friendship Tour)’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총 1만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에 초청했다.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스포츠 출시



현대자동차가 역동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 다양한 첨단 주행 지원 시스템 및 편의 사양 등을 갖춘 더 뉴 아반떼 스포츠를 출시한다.

더 뉴 아반떼 스포츠는 ▶스포티한 감성의 스포츠 모델 전용 디자인 ▶강력한 동력 성능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 ▶스포츠 모델 전용 커스터마이징 제품 추가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게임 전문 회사인 카카오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신작 캐주얼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렌드레이싱’에 더 뉴 아반떼 카트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부서 소식

이원우 플랜트사업본부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2018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회사 이원우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기념식에서 이원우 본부장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행사는 1965년 11월 1일 현대건설이 한국기업 최초로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을 기념해 2005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14명에게 정부 포상이, 40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Architecture of Gunsan reflects imperial Japan's design influence

Oct 29

Gunsan is located on the south bank of the Geum River, just upstream from the exit to the Yellow Sea. This geographical fortune allowed the city to house one of the country's most important warehouses to store the grains that people paid as tax in the Goryeo Dynasty (918-1392). However, such geographical attractiveness also made Gunsan prone to numerous outside attacks, eventually becoming one of the key targets of Japan's aggression against the people of Joseon. The Gunsan Port that opened in 1899 turned into a gateway to ship rice to Japan during its colonial rule (1910-45).

The Japanese who resided in the Gunsan Settlement accumulated great wealth, constructing luxurious Japanese style houses and high-end education facilities. Some of the buildings were recently designated as official historical sites of Korea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city has recently been suffering economically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General Motors' Gunsan manufacturing plants in May that had kept the city a thriving industrial hub. The city, however, is attempting to shed light on its deeply-rooted modern history and attract new visitors by organizing a number of modern history tour program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so selected Gunsan's Modern Alleyway Tour as one of this year's Autumn Tourism Week programs.



1 Old Gunsan Customs Office 2 Japanese-style House 3 Dongguk Temple

1. Old Gunsan Customs Office This red brick building with a blue door is probably the port city's most recognizable building. Designed by a German architect, this European style building was established in 1908 to carry out duties on goods that came through the Gunsan harbor right beside it. The building currently serves as a small exhibition hall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city. Visitors can access the exhibition hall for free everyday except Mondays.

2.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Located next to the Old Gunsan Customs Office, this three-story museum allows visitors to learn everything they could ever want to know about the story of Gunsan.

3. Former Gunsan Branch of Japanese No. 18

Bank (Current Modern Art Museum) Established in 1907, this white building with a green roof used to be the Gunsan Branch of Japanese No. 18 Bank. The building is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y No. 372.

4. Japanese-style House in Sinheung-dong The house is empty and visitors can take a look inside the home on Saturdays. The house is quite large and is composed of two structures connected together in an L-shape.

5. Dongguk Temple This temple is one of three remaining Japanese Edo-influenced temples and the last Japanese Buddhist temple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temple came to belong to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By KOREA JOONGANG DAILY

Korean wrestling set to be honored by Unesco

Oct 30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or ssireum, will likely be added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later this fall,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n Oct. 29.

Ssireum is a traditional sport that dates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A.D. 220~280).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the traditional sport's deep-rooted tradition and the fact that it is still popular today contributed to it being recommend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 assessment panel under the Unesco's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ed recognizing ssireum. Both South and North Korea

applied for ssireum's recognition.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during the 13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ssion, which is scheduled to take place from Nov. 26 to Dec. 1 in Port Louis, Mauritius.

A total of 40 items were assessed, and the panel decided to recommend 29 of them, including ssireum. It referred nine items and decided not to recognize two items.

The two Korea's applications were submitted separately, bu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aid it will consult with North Korea



and Unesco on merging the two bids. Currently, South Korea has 19 items on th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KOREA JOONGANG DAILY

Hyundai Motor to Establish 'Hydrogen Energy Fund' with Chinese R&D Institute BTIRDI

Hyundai Motor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Beijing-Tsinghua Industrial R&D Institute (BTIRDI) to jointly establish a 'Hydrogen Energy Fund.' Under this agreement, the South Korean automaker and its Chinese counterpart expect to strengthen their influence in the hydrogen ecosystem whilst accelerating the advent of a 'Hydrogen Society.' The Hydrogen Ener-



gy Fund will be jointly operated by Hyundai Motor and Yield Capital, BTIRDI's investment firm, with a goal to raise a total of USD 100 million.

Kia and Hyundai reveal solar charging system technology

Kia Motors and Hyundai Motor have announced plans to introduce 'solar roof' charging technology on selected Hyundai Motor Group vehicles. Electricity-generating solar panels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roof or the hood of vehicles, and will support internal combustion, hybrid and battery electric vehicles with additional electrical power, increasing fuel efficiency and range. Hyundai Motor Group



will launch the first generation of this technology into its vehicles after 2019 to help meet global regulations targets and improve vehicle fuel efficiency.

10 Minute Korean Lessons

Accommodations

▶ At a hotel

방에 휴지 없어요. 방으로 가져다주세요.

There is no toilet paper in my room. Would you please bring me some?
Bahng-eh hyou-jee awp-ssaw-yo, bahng-eu-ro gah-jyuh-dah joo-seh-yo.

▶ Other Expressions

칫솔

Toothbrush
cheet-ssol



치약

Toothpaste
chee-yahk



비누

Soap
bee-noo



얼음

Ice cubes
aw-reum



와인잔

Wine glass
wah-eeen jahn



샤워기가 고장났어요.

The shower is broken.
Shyah-wo-gee go-jahng na-ssaw-yo.

▶ Other Expressions

드라이어

Hair dryer
deu-rah-ee-gee



냉장고

Refrigerator
nehng-jahng-go



에어컨

Air conditioner
eh-aw-kawn



▶ Related Phrases

방이 너무 작아요/더워요/추워요/시끄러워요.

The room is too small/hot/cold/noisy.
Bahng-ee naw-moo jah-gah-yo/daw-wo-yo/choo-wo-yo/shee-ggeu-raw-wo-yo.

가방을 맡길 수 있어요?

Can I leave my bag here?
Gah-bahng maht-ggeel soo ee-ssaw-yo?

혹시 멀티어댑터/핸드폰 충전기를 빌릴 수 있을까요?

Could I borrow a multi adaptor/cell phone charger?
Hok-shee mawl-tee aw-dehp-taw/hehn-deu-pon choong-jawn-gee beel-leeel soo ee-ssoul-ggah-yo?

숙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Could I extend my stay?
Sook-bbahk gee-gahn yuhn-jahng-hahl soo ee-ssoul-ggah-yo?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성공신화 버리고 위기 극복한 100년 기업 파나소닉



해외 기업 탐방 ⑦ 파나소닉 '가전의 왕' 파나소닉이 돌아왔다. 가전제품만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파나소닉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단행했다. 그리고 전기 배터리 중심의 자동차 전장부품,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주택으로 주력 사업을 바꿨다. 혁신 DNA를 갖춘 '100세 파나소닉'은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까? 글=이부형 현대경제연구소 실장 / 사진=파나소닉 제공

독이 된 성공신화를 버리다!

파나소닉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1894~1989년)가 1918년 창업한 기업이다. 건전지, 자전거 램프 등 초기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이 커졌다.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철학은 수도철학(水道哲學)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다. 수도철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전제로 수돗물처럼 싼 제품을 대량 생산·판매함으로써 고성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파나소닉을 가전의 왕좌에 올려놓았다.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세계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이 한창 떠오를 때,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에 집중한 것이 실수였다. 파나소닉은 세계 1위의 PDP 제조사였다. 후발주자인 삼성·LG 등이 LCD로 방향을 틀 때 파나소닉은 PDP만을 고집했고, 시장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 1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파나소닉을 두고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기술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자국 시장만을 생각한 표준과 규격을 사용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한다.

몰락하던 파나소닉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사장 쓰가 가즈히로(津賀一宏) 덕분이다. 현재까지 파나소닉의 경영을 맡고 있는 쓰가 사장은 90여 개에 달하는 사업군을 철저히 분석하고, 90여 년간 주력해 온 TV와 라디오 등의 사업 비중을 확 줄였다. 2013년에는 PDP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5% 영업이익을 내는 데 실패한 사업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동안 파나소닉의 발목을 잡고 있던 수도철학에 근거한 성공신화는 막을 내렸지만 수익성만큼은 크게 개선됐다.

2012년도에 437억 엔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015년에는 3819억 엔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당시 똑같이 TV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일본 3대 가전 브랜드 중 하나인 샤프(현재 대만 흥하이그룹 산하 폭스콘에 인수)와 소니가 영업이익 적자로 전락되면서 실적 회복에 애를 먹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기에서 '버릴 수 있는 능력', 즉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한 것이다.

Co-Creation R&D로 부활한 가전의 왕

2013년 당시 파나소닉은 전체 매출의 약 15%, 영업이익의 9% 정도를 가전 사업부에 의존했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려면 가전 부문의 회생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파나소닉은 가전 브랜드 'J-Concept'를 개발했다. J-Concept는 50~60대가 주 고객인 프리미엄가전이 다. 경쟁사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당

시는 PDP 사업 실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절실했다. 파나소닉은 사업부 간 장벽을 허물어 R&D 역량을 집결시키고 OB들을 참가시켜 50~60대의 니즈를 상품 개발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가전 전문잡지 편집자와 평론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으며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른바 공동창조(Co-Creation) R&D를 추진했다.

특히 3만 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실시, 고객의 가전 이용 행태는 물론 가치관까지 분석해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세계 최경량 청소기, 고흥 여성의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세탁기, 고령자의 눈 건강을 고려한 조명기구, 무게와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고령자가 운전하기 쉬운 전동자전거 등 히트 상품군을 탄생시켰다. 2000년대 초반 10%대까지 하락했던 파나소닉의 일본 가전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월 27.5%로 상승했다. 파나소닉을 대표하는 가전 브랜드 J-Concept는 이렇게 파나소닉을 '가전의 왕좌'로 복귀시켰다.

'B2B'로 신성장 동력 확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 1위 기업은 어딜까? 다소 의아하겠지만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의 사업 영역은 ▶차량용 IT 기기·부품(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디오, 리튬이온전지 등) ▶태양광 발전시스템 ▶주택 관련 제품(건축 내·외장재 등)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통신 서비스 등 매우 다각화돼 있다. 파나소닉은 자동차 전장(전기·전자)화,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IT 기기·부품과 주택 관련 제품은 B2B 특성이 강하다.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파나소닉의 B2B 사업부만 성장은 자전주의(自前主義)를 버리고 외부 고객과의 연계를 강화한 결과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300억 엔 출자 외에도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에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Giga Factory)'를 건설했다. 이로써 파나소닉은 리튬이온 배터리 부문 세계(2016년 시장 점유율 16.5%) 1위를 공고히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도요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PHV(Plug-in Hybrid Vehicle·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에 이용되는 리튬이온전지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후지사와 함께 SST(Sustainable Smart Town) 건설 사업의 대표간사를 맡으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파나소닉의 자동차 사업부문과 주택 관련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각각 35.1%, 20.3%,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24.0%, 19.1%로 파나소닉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파나소닉을 살린 창업가 정신

파나소닉은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일개 상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라는 창업자의 뜻을 내규로 삼아 고객까지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전후 피폐한 일본에서 싸고 질 좋은 생활가전을 대량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바로 파나소닉이다. 파나소닉에서 말하는 상인이라 모르는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사 하나하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파나소닉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도 창업가 정신, 즉 창업가의 상인정신을 살리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삼성과 LG가 대형 액정TV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던 때, 북미 고객들로부터 '파나소닉이 만든 대형 액정TV가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파나소닉 경영자들은 '우리는 PDP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PDP나 열심히 팔겠다'고 했다. 결과는 당연히 파나소닉의 완패였다.

반대로 J-Concept 상품군이나 대부분의 B2B 사업들처럼 파나소닉을 위기에서 구해낸 성과 대부분은 철저한 고객 중심 경영에서 나왔다. 이는 "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파나소닉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쓰가 사장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객의 삶과 밀착된 '가전 DNA'를 계승하면서 다양한 산업 파트너와 함께 고객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쓰가 사장의 다짐은 과거의 창업가 정신이 어떻게 현재의 새로운 기업문화로 진화하는 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3



2

1 머릿결, 두피까지 케어해 주는 고성능 헤어드라이어 EH-NA98, 2 레이저 광원 프로젝트 PT-RZ21K, 3 프리미엄 면도기 ES-LV9C.



파나소닉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AN'과 '소리'를 의미하는 영어 'SONIC'의 합성어로, '마쓰시타전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계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파나소닉의 사업 영역은 일반 가전부터 차량용 IT 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무척 폭넓다.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한 대표 제품으로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된 액세서리, 안마의자, 프로젝트 등이 있다.





강연 동영상 보기

Ted 강연 ⑦멜린다에플러 18분 안에 세계 지식이 공유되는 무대 TED 강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 호 <사보신문>에서는 포용력 있는 동료의 조건과 조직문화를 소개한다. 글=안상현 『거인의 말』 작가

포용력 있는 조직문화의 첫걸음, 좋은 동료 되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혁신 전략가인 멜린다에플러(Melinda Epler)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아이디어와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다. 더불어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좋은 동료도 꼭 필요하다. 일할 맛나게 하는 좋은 동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멜린다가 강연에서 말하는 ‘더 나은 직장 동료가 되는 방법’을 기억하고 직접 실천해 보자.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을 넘어서

회사 조직의 포용력과 개방성을 저해하는 강력한 적이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을 좁히고 유연한 조직문화까지 저해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마이크로(Micro)와 어그레션(Aggression)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아주 작은 공격’을 뜻한다. 의도적으로 한 언행이 아니라라도 상대방이 모욕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소한 공격은 사실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업무 도중, 점심을 먹을 때, 심지어는 회식 중에도 주위를 맴돌면서 누군가의 정신을 소모시키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앗아가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자.

- 팀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집중하지 않는다.
-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의견을 냈는데 다수에 밀려 무시당한다.
- 동료의 실수를 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겨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소한 행동과 무심코 내뱉은 말은 동료의 회사 생활은 물론 그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수많은 구성원 중 한 명이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욕 상실은 주변 동료와 팀 전체를 부정적으로 몰들일 수 있다. 끝내는 조직과 해되는 악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직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구성원이다. 멜린다에플러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장 동료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① 잘 듣는 사람 되기

‘경청득심(敬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청은 어렵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느라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이렇게 무심결에 나온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하는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동료의 말에 집중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 동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소수의 아이디어 존중하기

조직 안에는 소수집단인 마이너리티가 존재한다. 평소 말 걸기 어려운 특이한 성격을 가졌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도통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이너리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 조직 생활로 적응하기 바쁜 신입사원, 다수와 다른 의견으로 동료들과 거리가 생긴 직원, 업무 속도가 조금 떨어진다든 이유로 발언의 기회가 적어진 직원이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힘이 미약하다. 집단에서 소외돼 능력 발휘의 기회를 잃은 경우도 많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주도권을 가진 메이저리티에게 가려 빛을 보지 못할 뿐이다.

조직에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필요하다. 다양성은 다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소수의 생각과 능력이 받아들여질 때 생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저절로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유대감 형성하기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료 간 유대감 형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좋은 유대감 형성은 끈끈한 집단 소속감으로 연결된다. 유대감은 주변 동료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심은 동료의 주도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내적 동기를 유발해 업무의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통찰까지 얻게 하는 유대감은 작은 반응으로도 생길 수 있다. 비록 다른 생각일 지라도

먼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 주자. 이와 같은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동지애가 생길 수 있다.

실패를 반복해도 승승장구하는 조직의 강점 ‘넓은 포용력’

구성원들이 유대감을 형성했다면 조직은 변화를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하루에도 수많은 조직이 생기고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의 실패는 환영받지 못한다. 특히 조직의 이익 창출면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늘 성공할 수는 없다. 다양한 시도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의 포용력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가져올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떠들며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소외감과 불안감으로 업무 시간을 채우고 있을지 모른다. 집단을 이끄는 다수가 있다면 소수도 반드시 존재한다. 다수가 조직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은 상실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사소하고 작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작동될 수 있다.

조직을 변화시킬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다수가 소수를 인정할 때 등장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질 때 조직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에너지로 넘쳐난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조직에 머무는 이유를 기억하자. 다른 생각들이 모여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발전하기 위함이다. 동지애로 뭉친 조직은 강하다. 이것이 우리가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넘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다.



멜린다에플러 Melinda Epler

작가이자 전략가인 그녀는 25년 넘게 신생 기업,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및 글로벌 NGO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Change Catalyst의 CEO로 다양성과 조직의 포용력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인가의 역할도 하고 있다.



The Singal Bypass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5.1-kilometer, four-lane road with 13 bridges 2.3 kilometers long combined. Hyundai E&C has an 80 percent share of the project valued at 223.3 billion won. Korea's primary builder kickstarted the project in March 2008 Ahead of the grand opening of the road on November 29, about 96 percent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finished. The builder is currently working on painting of traffic lanes, installation of road signs and construction of sound proof tunnels.

The newly built Singal Bypass is garnering full attention from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Yongin-si and local constituencies because the large-scale construction work crossing the downtown of Yongin City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tion to relieve traffic congestion. The Singal Bypass project could be perfectly completed in all aspects such as safety, quality and construction process due to the construction site's active measures to change construction designs. One of the key construction sections of the Singal Bypass project is to build the 1,220-meter Singal Overpass crossing the Gyeongbu (Seoul-Busan) Expressway. The construction site put its all-out energy into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methods and safety for about four years. The overpass was initially designed as a steel bridge erected by cranes. However, the review of the site found it impossible to secure enough space to facilitate cranes near the 10-lane expressway suffering from heavy traffic around the clock. After several consultations with related parties, the construction site embarked on changing the design of the overpass in December 2010, which resulted in using the F.C.M (Free Cantilever Method) to build an extradosed bridge in the 330-meter section directly crossing the Gyeongbu Expressway, and the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to construct beam bridges for other sections.

The construction site was under pressure as the Singal Bypass crosses the Suwon-Singal Interchange on the Gyeongbu Expressway linking Seoul and Busan, one of the most congested roads in the country. Since any possible fall of a single nail might lead to a major accident, the construction site strove hard to come up with the best possible temporary fall protection system. As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near the congested downtown area where schools and large apartment complexes are concentrated, a wide range of complaints regarding light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were filed. The construction site took active actions to deal with them by performing simulations and building cover f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ollution, which led to conducting the project without setbacks. The meticulous construction and active risk management of the Singal Bypass project were attributed to their preemptive efforts to follow the easy yet difficult principle in which a construction site should find out preventive measures to deter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ake preemptive actions before accidents take place.

Technology
경부고속도로 횡단 구간에서 F.C.M 가설공법 적용, 교통 통제 없이 장대교량인 신갈고개교 시공
Build the long-span Singal Overpass without traffic control by applying F.C.M to the construction section crossing the Gyeongbu Expressway

Owenship
적극적인 설계변경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및 원가 절감
React preemptively to risks and reduce costs through active changes in construction designs

Pride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대표 현장, 남다른 팀워크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
Successfully conduct construction work through great teamwork



Hyundai E&C completes a masterpiece of civil engineering



신갈우회도로 현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신갈우회도로'가 10여 년의 공사를 마치고 11월 29일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 공사로 주목을 끈 신갈우회도로는 42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에 용인 시내 교통 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글=김보나 / 사진=안호성

규모·기술력·시공력 모두 빛난 토목공사 역작

10여 년의 공사, 용인 시가지 교통을 바꾼다
용인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교양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다. 최근 몇년 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인구가 점차 늘어나자 기흥구와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42번 국도의 수원신갈IC-용인시청 구간은 출퇴근길이면 늘 정체를 시달렸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용인시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를 예상해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를 계획했고, 2002년부터 설계에 착수했다. 우리 회사가 최저가로 수주를 따낸 것은 2008년. 사업비는 2233억원(우리 회사 지분율 80%)이다. 도로 연장 5.1km(왕복 4차선)이며 그 중 교량 구간이 2.3km, 13개소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승인을 거쳐 2008년 3월 26일 마침내 착공했으나, 공사 면적이 넓고 용지 매수 및 보상에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공사의 특성상 부분적·산발적으로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에는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인 상갈교차로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 11월 29일 개통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96%로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방음터널 공사 등을 남겨놓고 있다.

용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지 대공사이자 교통 체증

을 완화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신갈우회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및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방문 현장으로 이곳을 찾아 우리 회사의 시공력을 칭찬한 바 있다.

도심 한가운데 F.C.M공법 도입, 장대교량 세우다
신갈우회도로 현장 직원들은 적극적인 설계변경으로 안전, 품질, 공정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마칠 수 있었다. 최초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은 결과 교량 13개소 중 6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모두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발주처 또한 현장의 주인의식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갈우회도로의 대표 구간은 단연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1220m 길이의 신갈고개교다. 현장 모든 직원들이 2013년 6월부터 약 4년간, 공법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신갈고개교는 최초로 '크레인에 의한 가설 방법을 활용한 강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장 길토 결과 24시간 교통량이 끊이지 않는 왕복 10차로의 경부고속도로에 크레인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7월 설계사와 발주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설계사, 감리사, 대한토목학회 등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2010년 12월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변경된 안은 직접적인 횡단 구간인 330m에는 E.D(Extra dosed)교 F.C.M 가설공법을, 그 외 구간에는 빔(Beam)교 런칭(Launching) 가설공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F.C.M공법은 하천이나 높은 산지를 횡단하는 장대교량에서 사용하는 가설 공법이지만 경부고속도로 횡단 구간에 적용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빔교 런칭 가설 공법은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빔을 거칠 때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아 교량 하부의 기존 도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갈우회도로 현장은 우리 회사 현장 중 가장 처음으로 이 공법을 적용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성공적 준공 이끌다
우리나라 최대 교통량을 자랑하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를 횡단한다는 점에서 신갈우회도로 현장의 부담감은 매우 컸다. 신갈고개교 공사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먼저 치명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은 이 동식 거꾸투 하부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만전을 기했다. 또 패널을 추가로 설치하고 겨울철 고드름 방지에도 힘썼다.

1 신갈교차로 방음벽 공사 현장.
2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신갈고개교 전경. 3 신갈교차로 인근에 조성된 생태이동통로. 4 이점 교차로 전경. 모든 교차로가 일체 식으로 만들어졌다. 5 방음터널 기초 작업 당시의 모습. 6 신갈고개교 주탑부에 계육기를 설치하고 있다.



Interview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현장 지휘 현장소장 김동균 부장대우



김동균 현장소장은 2015년 10월부터 3년째 신갈우회도로 현장을 이끌고 있다. 소장으로서의 첫 현장이기에 이번 공사는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부담이 컸던 신갈고개교 등의 고난이도 공사도 무사히 마쳤고, 현장 운영의 최대 가치로 삼았던 직원들 간의 화합과 안전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두어 자랑스럽다고. 그는 현장에서 맘 출린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장 직원들은 물론이고 발주처, 감리단과도 갈등 없이 협조하며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공정도 많고 마지막 추가 수주도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목표한 개통 및 준공일자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결과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도 ED교 시공도 완벽히 해내다 공사팀장 임경필 차장



현장의 숙원 과제였던 신갈고개교의 성공적 공사에는 F.C.M공법 외에도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다. 2개의 주탑 중 1개가 폭신구간에 배치돼 케이블 장력에 의해 주탑이 기울어지지 시공해야 했던 것. 임경필 차장은 주탑의 기울기를 계속 및 측량하고 구조 계산 결과와 비교해 설계팀과 의논했다. 기존 전초대교와 강경전교 공사 등 ED교 공사 경험을 발휘해 주탑의 경사도가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었다.

"2016년과 2017년 타사 토목 현장에 발생한 사고들을 반면교사 삼아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전에 현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터를 잘 닦아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준 동료들 덕분에 공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의 살아 있는 역사 안전팀장 서용원 안전과장



2008년 10월 부임한 서용원 안전과장은 11년간 신갈우회도로 현장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져왔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사 안전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은 기본이다. 밀착 관리를 통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즉시 피드백하고 모든 작업자가 SNS를 활용해 안전 상태를 공유했다.

"22개소 교각의 하부공 공사 터파기, 흙막이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신갈고개교 공사 시 낙하물방지공과 안전망을 2중으로 설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준공까지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소장님 이하 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적기 준공을 가능케 한 든든한 해결사 공무팀 이기훈 과장



이기훈 과장은 대외 및 내내 공무를 모두 담당하며 그야말로 밤낮없이 현장 살림을 행했다. 그 어느 현장보다 많았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도 이기훈 과장의 몫이었다. 이 과장은 발주처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감리사 및 우리 회사 내 설계팀과 협의해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공무 파트가 공사의 토대를 완벽히 마련한 덕분에 신갈우회도로가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었다.

"모든 공사를 조율해야 하고, 연달하면 다음해 세부 공정별 공사 진행 사항과 비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 팀이 없으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된 신갈고개교를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준공이 가까워 올수록 고생한 동료들, 선배님들과 떨어져야 할 아쉬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V리그'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시즌 V리그 여자부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다. 남자부와 따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간대도 바꿨다. 6개월간의 배구 축제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가을 단풍과 함께 찾아온 V리그! 홈구장에서 보면 더 재밌는 '여자배구 직관'

달라진 위상, 여자배구 인기 이유는?

지난 10월 22일 '2018-2019 V리그'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여자부 경기는 내년 3월 10일까지 현대건설 배구단을 비롯해 총 6개 구단이 팀당 30경기(6라운드)를 치른다. 이번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은 남자부와 여자부가 완전히 따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부가 주중 오후 5시, 남자부가 오후 7시에 경기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여자배구 팬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시작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직장인 팬들도 얼마든지 배구장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여자배구는 올 시즌 평균 관중에서 남자부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치솟는 인기를 입증했다.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V리그 1라운드 여자부 평균 관중은 2381명으로, 남자부 2101명을 넘어섰다. 이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여자부 특유의 섬세한 경기 구성이 관전 재미를 배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플레이어들의 활약도 컸다. 현대건설 배구단의 양효진·이다영 선수 역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실력을 발휘했다.



2018년 현대건설 배구단 키워드 '변화'

올해 현대건설 배구단의 키워드는 '변화'다. 어느 때보다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많다. 이도희 감독은 지난 5월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베키 페리(미국) 선수를 뽑았다. 7년 전 한국에서 라이트로 경기를 뛰 경험을 높게 산 것이다. 이 감독은 "레프트인 베키의 기용은 베테랑 공격수이자 팀 내 주전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 황연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정시영·정다운, 리베로 백채림도 올해 타 팀에서 현대건설로 온 선수다. 이들을 영입해 '빠른 배구'로 전술의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세 선수의 각오도 남다르다. 정시영 선수는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백채림 선수 역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리시브 위주로 팀에 도움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신인 드래프트로 새롭게 선발된 10대 선수들도 있다. 정지윤(센터·레프트),

심미옥(센터)과 수련선수 이미소(세터)다.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현대건설 배구단 유니폼을 입었다. 특히 정지윤 선수는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원스파이커와 미들블로커를 오가며 제 몫을 톡톡히 했다. 점프와 타점이 모두 훌륭한 선수로 성장 기대된다. 세계 여자 유스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서 활약한 심미옥과 2018 전국제천 여고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미소 역시 아직 코트를 밟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현대건설 배구단의 새내기 선수들은 "명품 구단인 현대건설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열심히 노력해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입단 소감을 말했다.

이거 빠지면 서운해, 홈경기장 이벤트!

여자배구를 가장 즐겁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직관(직접 관람)'이다. (사보신문)은 11월 2일, 현대건설 vs KGC인삼공사와의 홈 개막전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수원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오후 6시40분께쯤 도착한 경기장 입구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경기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티켓박스를 찾는 것. 우리 회사 직원용 관람권을 티켓박스에 제출하니 정식 입장권과 함께 간식권을 줬다. 배구 관계자는 "현대건설 배구단은 홈경기 때마다 유료 관중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장 안팎에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스노우볼 포토 존'과 현대건설 배구단의 마스코트 힐리·헌트·테리를 얼굴이나 팔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타투 존' 등 다채로웠다.

실내에 들어서니 경기장은 팬들의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팬들은 응원 용마대풍선을 힘차게 흔들며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경기가 시작하자 직관만의 매력이 더욱 느껴졌다. 먼저 TV 중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중계 카메라가 잡아주는 제한적인 화면이 아닌 넓은 시야로 경기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선수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 마치 코트 위에서 뛰는 '제3의 선수'가 된 기분이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바뀐 응원가와 응원 동작을 배울 때에는 응원단과 팬들이 혼연일체가 됐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팬들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득점하면 환호를 질렀고, 실점을 할 때도 격려의 함성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들은 응원의 열기를 높이며, 선수들의 이름을 힘차게 불렀다.

팬들이 '직관'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양한 장내 이벤트를 즐기기에 서일 것이다. 홈 개막전인 만큼 '선물 폭탄'이 준비돼 있었다. 경기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장내 이벤트로 보는 재미와 선물을 받는 재미까지 더해졌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한유미 선수의 은퇴식이 진행됐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그녀의 현역 시절 경기 장면과 현대건설 후배들의 영상 편지가 흘러나왔다. 관중들은 '수고했어 한유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해설위원으로 새 출발하는 한유미를 응원했다. 이날 경기는 3-1로 아쉽게 패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안기고 마무리됐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총 30개의 경기 중 이제 6게임만을 치렀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배구단을 두고 "에이스 양효진과 황연주, 황민경, 이다영에 신예 정지윤이 가세하면서 만만찮은 공격편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라운드에서 충분히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배구 축제의 시작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더욱 활약하기를 기대하며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현대건설 파이팅!"을 외쳐본다.



mini interview

이번 시즌 주목받는 루키 센터·레프트 정지윤 선수

180cm의 센터 정지윤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 지명을 받고 현대건설 배구단에 입단했다. 6개 구단 중 가장 어린 17세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도희 감독 역시 "한 달 뒤가 기대되는 선수다. 신인이지만 우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며 신뢰를 보였다.

Q 신인 드래프트 선정 소감은?

이름이 불렸을 때 꿈만 같았다. 훌륭한 선수가 많은 현대건설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Q 현대건설 배구단에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리시브나 수비는 연습을 좀 더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임답게 경기 중간중간 '파이팅'을 크게 외쳐야 한다고 본다.

Q 이번 시즌 어떻게 기여할 계획인가?

배구에서는 단합이 중요하다. 선배 선수들과의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연습에 더욱 매진하겠다. 또 팀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2018년 현대건설 배구단 홈경기 일정 장소: 수원

일시	대결 팀
11월 10일(토)	16:00 한국도로공사
11월 14일(수)	19:00 흥국생명
11월 24일(토)	16:00 IBK기업은행
12월 5일(수)	19:00 KGC인삼공사
12월 19일(수)	19:00 GS칼텍스
12월 26일(수)	19:00 GS칼텍스
12월 30일(일)	16:00 흥국생명

1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의 단체 사진. 2 젊은 층에 인기가 높았던 타투 존. 대학생들이 현대건설 배구단 마스코트와 미니 스티커를 얼굴에 붙인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야로부터 어른까지, 홈 개막전은 축제의 장이었다. 4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한유미 선수의 은퇴식이 진행됐다. 5 공격을 성공시킨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배역 모르고 오디션... <어벤져스>보다 비밀 많았죠”

배우 수현

어떻게 오디션을 봤나.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란 것만 알고 오디션을 봤다. 원래 해리 포터 팬이다. 중학생 때 원작 소설이 처음 나왔는데 한국 번역분을 기다리기 힘들어 미국에서 영어 원서를 구해왔을 만큼 좋아했다(수현은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5세부터 6년간 미국에서 살다 한국에 돌아왔다).

합격을 언제 예감했나.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감독님을 뵈었을 때 배우 에즈라 밀러가 상대역을 해줬는데 호흡이 좋았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했던 직관적인 연기를 감독님도, 롤링 작가님도 마음에 들어했다더라. 그날 제 역할이 내기니란 걸 들곤 깜짝 놀랐다. 역시 롤링은 반전의 여왕이구나, 재밌다, 감탄했다. (내기니의 출연에) 원작 팬들이 열광할 거라 생각했다.

제작 단계에서 감춰져 있던 캐릭터인데.

오디션 때도 한 장면 정도 꼭대본을 봤다. 사연 많은 사람이고, 여성기가 넘치고, 상처 받은, 어린 영혼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 면이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란 지적이 있다. 롤링은 『해리 포터』 때도 유일한 아시아계 캐릭터 초창을 의존적인 여성으로 그려 비판받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시아 배우로서 정말 더 예민하게 캐릭터를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가님을 믿고 있다. 영국에서 연극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가 공연됐을 때 (영화에선 백인 배우가 연기한) 헤르미온느 역할을 흑인 배우가 맡은 데 대해서도 옹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내기니가 볼드모트의 애완 뱀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해리 포터』 소설을 읽으며 내기니가 연약하거나 수동적이라기보단 볼드모트의 영혼을 나눠 가진, 강력한 존재라 느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다뤄질 이야기가 많으리라 본다.

영화 스틸을 보면 1편에서 뉴욕을 이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라진 청년 크레텐스(에즈라 밀러 분)와 가까운 사이일 것인데.

2편에서 크레텐스는 마법사들의 추적을 피해 프랑스 파리의 서커스단에 숨어든다. 내기니는 그 서커스단에 붙잡혀 있다가 그를 알게 된다. 내기니는 ‘말레딕투스’란 존재인데 저주로 인해 언젠가 완전히 동물로 변하는 여성을 뜻한다. 이번 영화에도 뱀으로 변하는 장면이 있다.

뱀의 몸짓은 어떻게 준비했나.

무브먼트 코치와 함께 뱀으로 변신하는 순간의 감정적인 몸짓들을 고안했다. 감독님 디렉션이 ‘뱀을 2% 더 가미해 봐’ 이런 식이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재밌었다. 뭔가 내 본능에 의존해 몸을 쓴 적이 처음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저 자신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했다.



1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이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출연에 나선 한국 배우 수현. [사진 문화창고] 2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내기니 역(왼쪽 둘째)을 맡은 수현과 영국 마법사 뉴트 역의 주연배우 에디 레드메인(왼쪽 다섯째), 3, 4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의 수현.

피플 인사이드 『해리 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 작가 JK 롤링의 새 판타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개봉한 <신비한 동물사전>의 2편으로 이달 14일 개봉을 앞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감독 데이빗 에이트) 얘기다.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에디 레드메인 분)가 스승 덤블도어(주드로 분)와 함께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조니 뎀 분) 세력에 맞서는 내용. 사전(辭典) 형태로 원작을 집필한 롤링이 직접 각본도 맡았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워너브러더스코리아



파리가 무대였다면, 불어도 했다.

분량이 많진 않지만 언어 욕심이 있어서 신경 썼다. 실제 촬영은 영국 스튜디오에서 했다. 1920년대를 구현한 세트장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정교했다. 바로 옆에 해리 포터 박물관이 있어서 이 시리즈의 역사가 서린 상징적인 공간처럼 느껴졌다. 저도 박물관에 가서 내기니 뱀 앞에서 암전히 ‘셀카’를 찍었다(웃음).

시리즈가 5부작으로 알려졌다. 후속편에도 출연하나.

아직 비밀이다. 배우들도 아직 자기 배역의 전체 스토리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듣는 정보에 의존해서 연기하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체감한다. 지금도 <마르코폴로> 배우들과 자주 연락하는데 오디션을 본 작품에서 아시아인 배역에 백인이 섭외됐거나, 영화 한 편에 아시아인이 고작 한 명 나온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할리우드를 바꾸려면 아시아 배우들이 더 많이 뭉쳐야 한다.

해외 활동하며 가장 힘든 점은.

처음에 할리우드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돼 많이 울었고, 매니저한테 진짜 표 사서 한국에 간다고 했던 적도 많다. 오히려 지금은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인, 나다운 내가 된 것 같아 재밌다. 돌이켜 보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선지) 자라면서도 정체성 갈등이 심했다. 외국인인 아닌데, 완전히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런 고민이 좋게 쓰여질 수 있는 시대를 만나 이런 영화들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해외에서 활동할 때도 아시아인이라 인식 없이 맡은 만큼 잘 융화되는, 다른 아시아 배우들이 해보지 못한 역할에도 도전하고 싶다.

해외 진출하려는 젊은 배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거절이나 기다림에 개의치 않고 계속 시도해야 한다. 당연히 연기는 괴롭고 스스로의 심스러운 순간도 많지만 편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자극해야만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영화에 함께한 조니 뎀은 워낙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존경한 배우이다. 눈앞에서 촬영하는 한 테이크, 한 테이크가 아름답더라.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게 감사하다.

“오디션 볼 땐 어떤 캐릭터인지도 몰랐어요. 제 역할이 ‘내기니’란 건 영국에서 본 최종 면접에서 에즈라 밀러와 호흡 맞추면서 알게 됐죠. <어벤져스>보다도 비밀이 많았던 것 같아요.”



Hyundai E&C Today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경리단길. 주택가 건물 1층을 개조해 만든 카페나 음식점이 많다.

SNS 중심으로 유행 퍼져 ... 임대료 따라 흥망(興亡) 반복 서울의 새 골목길 명소 '~리단길'

문화칼럼 경리단길, 송리단길, 망리단길 등의 공통점? 주택가 골목에 숨바꼭질하듯 숨은 명소가 즐비하다는 것. 청춘들은 SNS에 '나만의 공간'을 뽐내기 위해 '~리단길'을 찾고 있다.

글=이동엽 <일간중앙> 인턴기자 / 사진=전민규 기자

망원역 2번 출구에서 500m 가까이 떨어져 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풍경은 평범한 주택가로 망원시장을 지나서야 가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이들 가게는 아담한 규모인데도 꽤나 세련된 느낌을 준다.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망리단길에는 개성을 뽐내는 가게가 많다. 가게 주인들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에 착안한 아이템으로 가게를 꾸며 놓았다. 이들 이색적인 공간들이 SNS라는 수단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이 골목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다. 카페 '디어마이페어리'의 박수빈 사장은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SNS 트렌드 소개글에 우리 가게가 올랐는데 그 뒤로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멀티플렉스~공원~송리단길 걷기

망리단길이 강북의 핫 플레이스라면, 강남에는 송리단길이 있다. 송리단길은 잠실 석촌호수 근처 백제고분로와 오금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말한다. 망리단길과 마찬가지로 경리단길의 느낌을 주는 송파구 주택가 골목길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송리단길은 '~리단길'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만 해도 아는 사람들만 찾는 곳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올해에는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SNS에서 유명한 맛집들의 경우는 식사 시간에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기다림 자체가 골목길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듯, 예쁜 디자인의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차례를 기다린다. 한 대학생 커플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범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다 갑자기 이색적인 가게와 마주치는 것도 이곳의 매력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특색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리단길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면 잠실역 2번 출구로 나와야 한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롯데월드 몰과 롯데월드타워이다. 지난해 4월 개장한 이 롯데월드타워는 지상만 123층에 달하는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기존의 멀티플렉스 성격을 가진 공간과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을 모두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는 석촌호수가 있다. 석촌호수가엔 돌레길처럼 꾸민 공원이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멀티플렉스~공원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휴식 공간에다 송리단길이 가진 소박한 매력에 더해지면 사람들의 선택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독특한 개성과 아기자기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골목상권이 현재의 모습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경리단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망리단길-송리단길의 내일도 가능해 볼 수 있다.

골목길 상권의 가장 큰 적은 '높은 임대료'

경리단길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가게 임대료가 상승했다.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게 주인들은 하나둘 골목을 떠나야 했다. 그 빈자리에 프랜차이즈 가게 혹은 인형 뽑기가 들어섰다. 원래 특색이 없어졌고,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들어 골목 상권이 쇠퇴하는 악순환이다.

원조 골목길 상권이라 할 경리단길은 유명한 가게들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빈 가게들이 심심찮게 보였고 방문객도 적어 한산해 보인다. 옛날의 주택가 풍경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랄까. 평일 낮에도 손님들이 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선 망리단길-송리단길과는 사뭇 달랐다.

경리단길의 부침 과정이 다른 골목상권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에 밀려 떠난 가게들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새로운 곳에서 동지를 튼다. 그곳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다. 점점 쇠퇴하는 경리단길과 가까운 해방촌이 요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에서도 골목길 상권이 처음 뜬 곳은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이다.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육군중앙경리단(현재의 국군재정관리단)이 길 초입에 위치해 있어 경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는 평범한 주택가 골목이었던 곳에 예술가와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명소가 됐다. 특히 경리단길은 2014년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소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입소문을 타고 골목길 상권이 핫 플레이스로 등극하자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몇몇 도시에도 경리단길의 이름을 빌린 공간이 생겨났다. 일명 '~리단길' 시리즈라고 할 만하다. 서울의 망리단길과 송리단길을 비롯해 전주 객리단길, 경주 황리단길이 그것이다.

이름을 공유한다고 해서 꼭 이 골목들이 닮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프랜차이즈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은 가게·카페·공방 등이 모인 '주택가 골목길 상권'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도심 변화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성돼 대체적으로 조용한 공간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소박한 느낌 가득한 골목, 망리단길

망리단길은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 옆 포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지칭한다. 이곳의 이름은 포은로가 위치한 망원동과 특색 있는 골목길 상권으로 유명한 경리단길에서 따왔다. 주택가 골목길 건물의 1층을 개조해 만든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에는 아직도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고 있는데 주택가 생활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이 이색적이다.

망리단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말. 흥대 앞 상권의 확장이 이 골목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흥대 앞에서 사업을 하던 상인들이 임대료가 오르자 인근 상수동·합정동을 거쳐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망원동까지 하나둘 옮겨왔다. 망리단길로 불리기 전 이곳은 재래시장과 가까운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지금은 흥대 앞만큼이나 활기가 넘친다.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할 수도 있다. 기존의 상권과는 달리 전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 6호선



1



2

1 송리단길에서 바라본 롯데타워. 저녁이 되면 멋진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2 망리단길의 한 소품가게 앞에 전시된 제품들을 젊은이들이 소원도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 3 경리단길의 급한 경사 때문에 독특한 외형을 가진 가게들을 볼 수 있다. 4 망리단길의 주택가.



3



4

계동산책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가 생각난다면, 남도분식으로 가자.

개그우먼 이영자가 추천한 떡볶이 맛집, 남도분식

‘떡방 요정’ 이영자가 추천한 떡볶이 맛집이 익선동에 생겼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남도분식’. 대구 납작만두, 전주 김밥쌈, 부산 비빔당면, 광주 상추쌈 등 한강 이남의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독특한 분식집이다.

남도분식의 시그니처 메뉴는 ‘빨콩 떡볶이’와 ‘상추쌈’. 빨콩 떡볶이는 맵고 달달한 떡볶이에 파 튀김과 콩나물이 수북히 올려져 있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과 개운한 뒷맛을 자랑한다. 비결은 바로 떡볶이 양념, 한식·양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랜 시간 연구했다는 양념은 고추장 대신 다양한 종류의 고춧가루와 과일을 갈아 만든 푸르츠 소스, 비정제 설탕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 특제 소스다. 빨콩 떡볶이의 하이라이트는 파 튀김이다. 파 튀김을 잘게 찢어 떡볶이 양념에 적셔 먹으면 튀김의 바삭한 식감과 양념의 매콤달콤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곳에 왔다면 반드시 주문해야 할 두 번째 메뉴는 상추쌈. 오동통한 오징어·당면이 가득한 김밥이 튀김 등을 양과절임과 함께 상추에 싸먹는 음식이다. 튀김의 느끼한 맛을 양과절임이 잡아줘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외에 김밥을 제육볶음과 함께 싸먹는 ‘김밥쌈’, 매운 양념을 뿌린 야채를 만두피에 싸먹는 ‘비빔만두’, 들기름에 볶은 무청을 넣은 ‘시래기 떡볶이’ 등도 인기 메뉴다.

남도분식의 또 다른 매력은 복고풍 인테리어.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에서부터 과중시계, 어린 시절 학교에서 봤을 법한 식탁과 의자는 옛 향수를 자극한다. 스트레스를 날릴 때쯤이면 필



1 전주 지역의 명물인 김밥쌈. 2 레트로 감성을 살린 인테리어. 3, 4 시그니처 메뉴인 빨콩 떡볶이와 상추쌈.



1

요하거나 그 옛날 먹던 학교 앞 떡볶이 맛이 그렇다면 익선동 ‘남도분식’을 방문하면 어떨까. 반가운 소식 하나! 남도분식은 올해 말 회사 인근 계동점에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보자.

글=황선영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사우들을 위한
SPECIAL EVENT
2인 이상 주문시
탄산음료 1잔 제공
(11월 한 달간)

남도분식

주소 서울 종로구 수표로 28길 33
영업시간 11:30 ~ 21:00
문의 02-763-7778



3



4

현대 미술랭가이드 Michelin Guide

★★★★★
송변전 사업실
김광석 부장 | 이성우 부장 | 조진제 부장

★★★★★
은평성모 병의원장
이승만 사원 | 박현우 과장 | 유지수 사원

떡볶이와 상추쌈 등 메뉴 모두 맛있고 양도 푸짐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플레이팅도 멋져서 먹는 맛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상추쌈, 비빔당면처럼 쉽게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방의 유명 음식을 골라 먹으니, 마치 한 시간 동안 전국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일상 안전매뉴얼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쇼핑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과정은 안전하게, 결과는 만족스럽게! ‘안전한 쇼핑’편

1 카트에 아이를 태울 때는 안전벨트 착용

쇼핑카트에 아이를 태울 때는 짐칸이 아닌 좌석에 태우되, 허용 체중(15kg)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2 무빙워크 위에서는 STOP

무빙워크에서는 절대로 걷거나 뛰지 말고,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경우 아이 손을 꼭 잡아야 한다.

3 복합시설에서는 비상구를 먼저 확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반드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 이용은 절대 금물이다.

4 온라인 쇼핑 시 ‘자물쇠’ 확인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을 확인하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면 ‘안전한 인터넷 연결’을 의미하므로 안심이다.

5 온라인 결제 시는 교환·환불 가능 여부 확인

결제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와 제품 불량 시 교환·환불 여부를 확인하자. 또한 신용카드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온라인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바꾸자. 다만 아는 단어에 숫자와 특수문자를 조합하면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Tip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요령

우리가 생활하면서 입고, 먹고, 바르고, 닦고, 부리는 모든 제품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더 꼼꼼하게 안전을 따져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자. 화학제품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일반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종류	유리용, 스프레이형
① 성분	알칼리성
② 표준사용량	1L에 2mL
보관상 주의	되도록 상온에서 보관에 주십시오
액성	세제/살균, 소독제 0.2%, 독성 있음
③ 자가검사번호	0-0000-000000-000

- ① 독성문구 제품 겉면에 적혀 있는 성분 명칭, 기호, 함유량은 물론 ‘독성 있음’ 문구도 확인해야 한다.
- ② 표준사용량 및 사용법 사용량과 노출량에 따라 위생성이 달라지는 생활화학제품은 권장 사용량과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③ 자가검사번호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의미이니 구입 전 유무를 꼭 확인하자.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건설회사,
'아재'들만 있을 것 같지?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청춘 오피스 웹드라마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

Woman power

현대건설 최초
여성 현장소장 탄생!

+

Interview

현대건설의 걸크러쉬 최우수 대리,
배우 송다은 인터뷰

Technology

현대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래장미, 상상 이상의
첨단 건축물로 다시 피어나다
카타르 국립박물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
누가 지었을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청와대
서울의 랜드마크 N서울타워
그가 애타게 가족을 부르던 양화대교

대충 찍어도 인생샷!

인생샷을 부르는
아름다운 다리 Best 7



신규 제작한 기업홍보 광고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